

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상방요인 산적 7% 가능성

‘6월 소비자물가동향’ 1년 전보다 6.0% ↑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물가 급등 전인
석유류 가격 39.6%, 외식물가 8.0% 상승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고,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외식·서비스 물가마저 치솟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6%대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상방 요인이 산적한데, 이달부터 적용된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분까지 반영되면 하반기에는 7%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전월 5.4%보다는 0.6%포인트(p) 확대됐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당시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환율이 급등하며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상승해 물가가 치솟았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가 끌어올렸다. 공업제품의 물가 기여도는 3.24%p, 개인서비스는 1.78%p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률 6.0% 중 두 품목이 5.0%를 차지하는 셈이다.

공업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9.3% 상승했다. 2008년 9월(9.3%)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으로 경유(50.7%), 휘발유(31.4%), 등유(72.1%), 자동차용 LPG(29.1%) 등 석유류 가격이 39.6%나 뛰었다.

원재료비가 오르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 회복에 소비 확대 영향 등으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5.8%로 높았다. 1998년 5월(5.9%)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그중에서도 생선회(10.4%), 치킨(11.0%) 등 외식 물가가 8.0% 올랐다.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보험서비스료(14.8%), 공동주택관리비(4.5%) 등 외식 외 서비스 물가도 4.2% 상승했다.

농축산물 물가는 4.8% 올랐다. 채소류 가격이 6.0% 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1.6% 상승했다.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주요 품목을 보면 포도(31.4%), 배추(35.5%), 수박(22.2%), 감자(37.8%) 등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축산물 가격은 10.3% 상승했다. 돼지고기(18.6%), 수입쇠고기(27.2%), 닭고기(20.1%) 등이 모두 올랐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전기료(11.0%), 도시가스(11.0%), 상수도료(3.7%) 등이 오르면서 전기·수도·가스요금은 1년 전보다 9.6% 올랐다. 지난 4월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며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하반기 물가 전망은 더욱 어둡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 긴축정책, 수입 곡물단가 상승 전망 등 대외적으로 물가 상방 요인이 즐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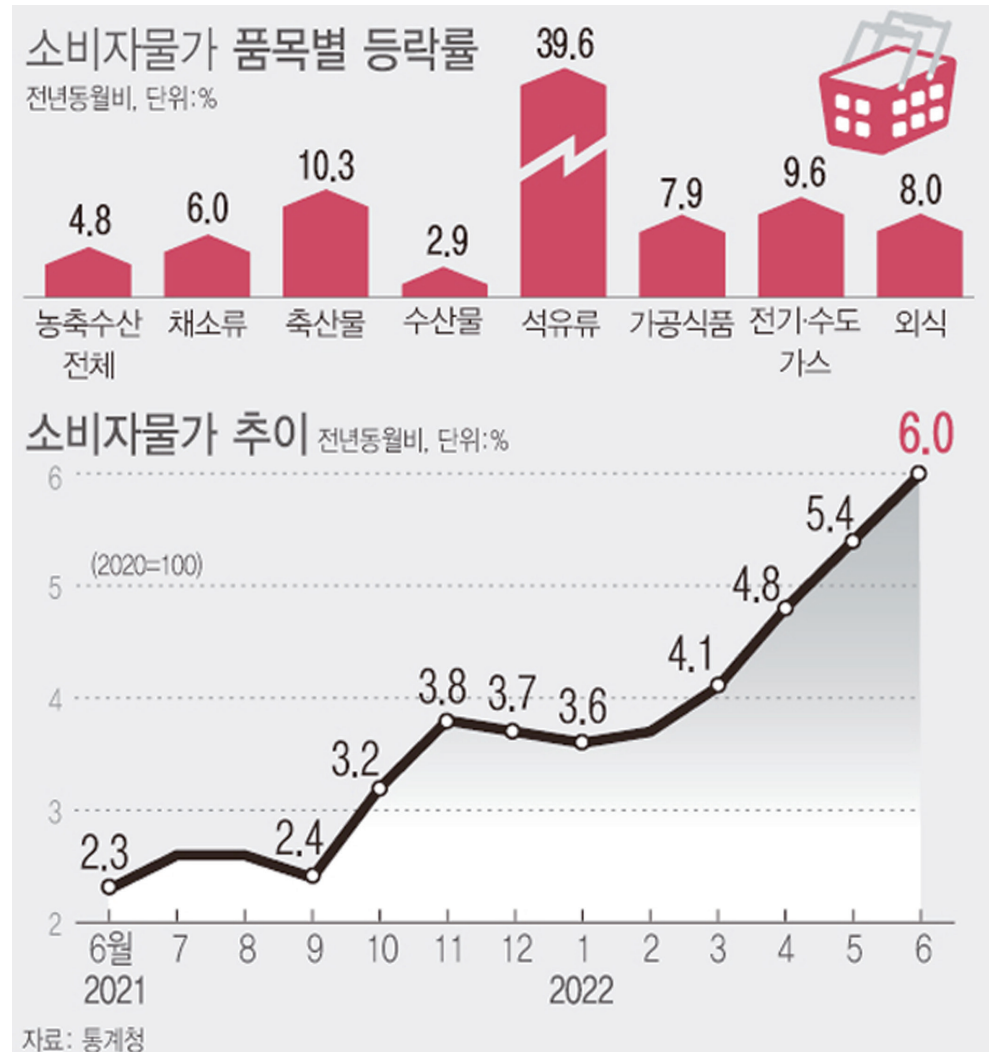
여기에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분이 다음 달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1534원, 가스요금은 월 2220원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늘어난 소비도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여름 휴가철과 9월 추석 성수품 수요가 몰리며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오름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기는 한데 상방 요인이 더 많아져 지금 추세라면 (물가 상승률이) 6%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어 심의관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라며 “지금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하면 7%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 7%대는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0월(7.2%)에 기록한 적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



곡물이 상승 영향으로 당분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민생·물가안정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쿠팡, 와우회원 대상 ‘2022 빅세일’

가전·생필품·패션·뷰티·식품 등 전 카테고리 상품 할인 판매

쿠팡은 오는 11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2022 와우 빅세일’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가전, 생필품, 패션, 뷰티, 식품 등 전 카테고리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와우 역대급 빅세일’ 코너에서는 고객들이 자주 찾는 상품을 매일 오전 7시부터 선착순으로 가격 할인가에 선보인다.

테팔 인덕션 프라이팬, 쿠첸 전기 밥솥, AHC 스킨케어세트, 피죤 섬유유연제, 하گی스 매직팬티 등 인기상품부터 다양한 여행상품까지 준비했다. ‘와우 골드박스’ 코너에선 매일 전

카테고리에 걸쳐 인기상품을 선별해 단 하루 특가로 선보인다. 매일 아침 7시에 업데이트되며 40여개의 엄선된 상품을 24시간 동안 특별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매일 2개의 인기 브랜드를 선별해 다양한 혜택과 함께 선보이는 ‘와우 브랜드빅세일’ 코너도 운영한다. ‘와우 카테고리빅세일’ 코너는 뷰티, 패션, 펫, 육아, 주방, 식품 등 각각 다른 카테고리의 인기 상품들을 선보인다. 헤라, 닥터지, 로라로라, 다우니, 하گی스, 비오비타 등 각종 전문 브랜드 제품을 단 하루만 큰 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슬비기자

쌍용차, 중형 SUV ‘토레스’ 출시...2740만~3020만원

코란도·무쏘 뒤를 잇는 차량으로 선보인 신차



쌍용자동차가 5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인 ‘토레스’를 출시했다. 대용량 적재공간과 각종 안전·편의사항을 반영하면서도 가격대는 2000만~3000만원대로 책정했다.

쌍용차는 이날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신차발표회를 열어 토레스를 공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 및 선목대 노조위원장 등 인직원을 비롯해 협력사 대표, 대리점 대표 등 300여명과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객채선 K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레스는 과거 쌍용차의 대표 차량이었던 코란도·무쏘의 뒤를 잇는 차량으로 선보인 신차다. 정통 SUV 스타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

해석한 레트로 감성을 반영했다.

내부 공간은 대용량 적재공간을 강조했다. 골프백 4개와 보스텐백(여행용 손가방) 4개를 수납하고도 여행용 캐리어를 추가로 실을 수 있는 703ℓ(VDA213 기준·T5트림 839ℓ)의 공간을 확보했다. 2열 좌석을 접을 경우 1662ℓ의 적재가 가능해 캠핑·차박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파워트레인은 친환경 1.5ℓ 터보 가솔린 엔진(e-XGDI150T)과 3세대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최대토크 28.6kg·m, 최고출력 170마력의 힘을 낸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1.2km/ℓ(2WD)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획득해 혼잡통행료와 공영·공항주차장 이용료 50~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호대기 등 정차 상황 때 엔진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연비를 높이는 공회전 제한시스템(ISG-Idle Stop&Go)이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됐다. AWD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해 악천후와 오프로드에서 안전성과 주행성능을 높이도록 했다.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하는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과 함께 파사이드 에어백 및 운전석 무릎 에어백 등을 포함한 8에어백도 적용됐다.

차로 변경시 후측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경고해주는 후측방 경고(BSW)와 사고를 방지하는 후측방 충돌보조(BSA) 기능도 탑재됐다. 특히 ESP 기능 중 다중충돌방지 시스템(MCB)은 1차 사고로 운전자가 차량제어가 불가능할 경우 자동으로 10초간 브레이크를 작동해 추가 상해를 방지해준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기반 커넥티드카 시스템 인포콘(INFOCONN)을 통해 ▲원격제어 ▲안전 및 보안 ▲차량관리 ▲어시스턴스 ▲정보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고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될 경우 인포콘 상담센터를 통해 상황에 맞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에어백 전개 알람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10년 무상 제공한다.

판매가격(개별소비세 인하 기준)은 트림에 따라 ▲T5 2740만원 ▲T7 3020만원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토레스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이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쌍용차의 DNA를 담아 개발했다”며 “앞으로 쌍용차의 정체성이 더욱 잘 반영된 새로운 모델을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우나기자

해외 겸용 ‘핀트 카드’...전월실적·연회비 없다



디센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운영하는 AI(인공지능) 일일 투자 ‘핀트’는 해외 겸용 핀트 카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겸용(VISA)으로 새롭게 출시된 핀트 카드는 기존 국내 전용 카드보다 캐시백 혜택

을 받기 위한 요건은 더 쉬워지고 결제하는 해외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핀트 카드는 BC카드와 제휴한 선불형 체크카드다. 전월실적이나 적립한도에 제약이 없다. 카드 발급 비용과 별도의 연회비도 없다.

해외 겸용 핀트 카드는 기본 적립 0.2%에 더해 잔돈 쌓기 설정 시 추가 0.2%, 핀트 투자 운용 시 추가 0.2%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결제 금액의 최대 0.6%의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디센버앤컴퍼니는 이번 신규 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사전 이벤트가 진행된다.

뉴스시

이마트24, 타이포그래픽 강조한 ‘아임e 스낵’

이마트24는 패키지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으로 재단장한 자체 개발상품 ‘아임e 스낵’ 5종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아임e 스낵 5종은 ▲교-옥수수계란과자나왔네! ▲진지한곰미빠다팝콘 ▲칠리뿌린통통한새우칩 ▲사르르고르곤잘라치즈소프트콘 ▲또!또!또!멈출수없는체다치즈볼로 상품 특징을 위트 있고 독창적인 이름으로 단장했다.

이 패키지는 타이포그래픽을 감각적으로 표

현했고, 진열대로부터 10m 거리에서도 고객들에게 재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상품명 활자 크기를 확대했다.

뉴스시

서울우유, 식사 대용으로 좋은 ‘비요뜨 더 그레놀라’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신제품 ‘비요뜨 더 그레놀라’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우유는 2004년 꺾어 먹는 토핑 요거트 제품인 ‘비요뜨’를 처음 출시했다. 이후 초코링, 크런치볼, 쿠키앤크림, 초코팜, 초코크리스피 등 총 6종의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토핑 요거트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국산 원유를 함유한 플레인

요거트에 현미, 귀리,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몬드 5가지의 슈퍼푸드 곡물을 한 데 담았다. 곡물 본연의 맛을 위해 튀기지 않고 그대로 구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한꺼번에 섭취하기 힘들었던 고급 그레놀라 토핑을 한 데 담은 신제품으로 맛은 물론 건강한 한끼 식사 대용으로 제격이다”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